



동아일보 사진제공

김윤범 시카고의대 교수

“무균돼지 연구 10년’ 고국에 쥐 보람”

“40여년간 미국에서 생활했지만 항상 고국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한 무균돼지가 한국의 장기이식 연구 발전에 쓰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12월 11일 ‘인간 장기 이식용 무균돼지 탄생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몸소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 연구실을 찾은 김윤범(金允範·76) 미국 시카고대 의대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올 초 30년간 안전하게 번식해 온 것이 확인된 무균 상태의 미니돼지 세포를 황 교수 연구팀에 제공해 연구의 핵심 여건을 마련해 준 숨은 공로자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59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 교수는 면역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무균돼지를 연구, 1973년 완전 무균돼지 복제에 성공해 지금까지 100여 두의 무균돼지를 보유했다.

황 교수는 “연구 성과의 절반은 김 교수님의 몫”이라며 “복제돼지를 연구하는 세계 모든 학자들이 열망하는 무균 미니돼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02년 12월 26일. 황 교수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6년 전부터 인간 장기 이식용 복제돼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수십년간 안전하게 세대를 이어온 것이 확인된 무균 미니돼지를 구할 길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장기 이식용 복제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장기와 크기가 비슷한 무균 미니돼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 돼지에는 미생물이 있어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수 없다.

김 교수와의 만남이 이뤄진 것은 바로 이 때. 사정을 들

은 그는 심포지엄이 끝난 후 황 교수를 찾아가 “30년 동안 유지해 온 무균 미니돼지를 줄 테니 한국이 먼저 장기 이식용 돼지개발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시 복제돼지를 연구하던 PPL사에서도 돼지를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어디로 굽겠습니까.”

김 교수는 “하지만 실력이 없었다면 결코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험실을 둘러본 뒤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연구 자체의 수준이 놀라웠을 뿐 아니라 수의대, 의대, 자연과학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열성적으로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저는 이 연구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장기 이식이라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힘을 모아 연구하는 황 교수 연구팀의 모습은 향후 과학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협동 연구’의 역할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이후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한국을 방문, 실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연구팀을 격려했다. 그는 “연구(Research)란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다시(Re) 찾는(Search) 것이므로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며 “계속 깊이 파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발견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저는 항상 후학들에게 ‘단번에 성공하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으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어 무균돼지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며 “연구자의 길을 걸었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 나이가 되도록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_ 전지원 동아일보 기자 podragon@donga.com